

전주국제영화제 티켓 예매 일정 공개

개·폐막식 예매 17일 오후 2시·일반 예매 19일 오전 11시 티켓 오픈

오는 5월 1일 개막을 앞둔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개·폐막식을 포함한 전체 예매 일정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개·폐막식 예매는 17일 오후 2시부터, 일반 예매는 19일 오전 11시부터 할 수 있다. 예매는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홈페이지(<https://www.jonjufest.kr/>)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티켓 가격은 일반 상영 9,000원, 마스터클래스 15,000원, 이벤트 상영·전주특별은 12,000원, 개·폐막식/심야 상영은 20,000원, 전주씨네투어X음악은 33,000원이다. 예매 후에는 별도 티켓 발권 없이 '모바일 티켓'으로 상영관 입장이 가능하다. 다만, 모바일 티켓을 캡처한 사진으로는 입장이 불가하다. 모든 판매 좌석은 온라인(모바일) 예매로 판매할 예정이며, 온라인(모바일) 예매로

매진되지 않은 판매분에 한해서는 영화제 기간 중 현장 매표소에서도 구매 가능하다. 장애인 및 휠체어 관객의 경우 9~17일까지 별도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는 방식으로 사전 예매를, 또 단체 관람 신청은 온라인(모바일) 예매 오픈 이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전주국제영화제는 전주 시민들의 영화제 접근성을 높이고자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전 매표소를 운영한다. 올해는 16~21일 까지 전주영화제작소 4층 휴게실에서 운영한다. 이 중 16~18일은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19~21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다. 일반 예매 오픈 전 3일 동안 전체 예매 분량의 20%를 사전 판매한다. 사전 예매가 가능한 대상은 전주 시민, 전주에 주소지를 둔 학교 혹은 직장의 재학생과 직장인이며, 예매 시 신분증을 증명할 수 있는 신

증, 학생증, 명함 및 사원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개·폐막식을 포함한 모든 상영작 예매가 가능하지만 상영작 1편당 1인 최대 2매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사전 예매 결제 수단은 오직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만 가능하며, 현금 결제는 불가하다. 또한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기로 했다. 전주 시민 대상 사전 매표소 이용 가능 대상자는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상영하는 일반 상영작 및 폐막식 입장권 예매 시 50% 할인 혜택을 받는다. 해당 할인 혜택은 영화제 기간에도 계속 유지돼 현장 매표소 예매 시에도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홈페이지(www.jonjufest.kr/)를 참조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마이산 봄꽃과 함께 공연 즐겨요”

진안중평농악 '바람굿 한마당'·생활문화예술동호회 '국악한마당' 개최

진안군은 오는 13일 11시부터 마이산남부(탐양계 및 잔디광장)에서 진안중평농악 '바람굿 한마당'과 진안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국악한마당' 공연이 열린다고 밝혔다. 오전에 열리는 진안중평농악 '바람굿 한마당'은 2006년부터 마이산 남부를 중심으로 진안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을 대상으로 진안중평농악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관객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용대기 놀음'과 '반잔자래기 가락'으로 관객 모두가 하나되는 대동 한마당을 열어간다. 오후에는 진안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농악, 판소리 등 '국악한마당'이 진행돼 진안군 국악동호회원들이 모여 국악의 열정을 뽐낼 예정이다. 특히 금당사에서 탐양계에 이르는 구간은 벚꽃이 화려하게 피는 곳이라 공연장을 찾는 이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상식 문화체육과장은 "봄을 물씬 느낄 수 있는 마이산에서 벚꽃과 함께 진안중평농악과 진안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열정적인 공연을 즐기며 진안 공연예술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많은 참석과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기악합주

국립민속국악원, 토요일 국악나들이 주말기획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국악원 예연당에서 2024 토요일 국악나들이 주말기획 공연을 펼친다. 4월 20일과 27일 토요일 국악나들이는 전통 공연예술의 진수를 펼쳐 봄을 즐기는 관객들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을 개최, 20일에는 △정재 춘앵전 △판소리 이별가 △기악합주 걸음마다 꽃이 피소 △민요 신사철가, 사철가, 단오놀이 △삼도 설장구 가락을 감상

할 수 있다. 또한 27일에는 △단막창극 적벽 △기악독주 박종선류 이경산조 △민속춤 동래학춤 △기악합주 대풍류 △사물놀이 웃다리농악을 만나게 될 예정이다. 관람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과 카카오톡 채널(국악원 친구 추가) 및 전화(063-620-2329)로 예약 및 공연 소식을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지식살롱 시즌2’ 올해 첫 강연 17일 열린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한국관광공사, 최장순 대표 ‘일상의 빈칸’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지사장 오충섭)와 공동으로 '전북지식살롱 시즌2'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식살롱은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도내 관광기업 및 관광산업에 관심 있는 사람과 업계 전문가가 다양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그들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첫 강연은 17일 오후 5시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1층에서 진행, 기획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CD) 최장순 대표가 '일상의 빈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

다. 이에 따르면 최 대표는 글로벌 3대 디자인 어워드 (Red Dot, IF, GDA) 수상 크리에이티브 자 베스트셀러 '기획자의 습관(스치는 일상을 빛나는 생각으로 바꾸는 10가지 비밀)'의 저자이기도 하다. 또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 GUCCI, 마켓컬리, 올리브영 등 국내외 우수 기업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그동안 진행했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누구나 기획자가 될 수 있고, 기획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일상을 유심히 바라보는 기본 습관에서 시작한다는 내용으로 소통

할 예정이다. 특히 강연 내용은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다. 오충섭 지사장은 "지식살롱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정기적인 교류의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내 관광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관계 형성에도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지식살롱을 통해 전북자치도를 사랑하는 '전팬'을 만들고, 끊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참여 신청은 포스터 내 QR 코드 또는 신청 링크(<http://tmn.gd/KZK1y>)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063-230-4216)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정읍시 수제천보존회, 17일 신춘음악회 개최

정읍시 수제천보존회(이사장 장기철)는 오는 17일 오후 7시 30분에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신춘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신춘음악회는 수제천보존회의 올해 첫 공연으로, 새 출발을 다짐하는 의미를 담아 수제천 연주단의 웅장한 연주를 통해 힘찬 선율을 선사한다. 특히 이번 음악회에서는 경남 무형문화재 보유자 강동영의 가야금 병창 공연을 선보이며, 신관용류 가야금산조를 통해 가야금의 진수를 맛보는 시간도 준비됐다.

시 관계지는 "따뜻한 봄을 맞아 열리는 음악회가 시민들의 지치고 바쁜 일상에서 잠시 쉬어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수제천이 정읍 전통의 소리문화로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제천은 백제 가요인 정읍시에 노래를 반주하던 음악이 단일 기악곡으로 발전되며 붙여진 이름으로 수명이 하늘처럼 영원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궁중 의례와 연향에 사용됐다. 수제천보존회에서는 수제천 음악과 무고(무



용) 복원 과정을 거쳐 완성된 작품을 정기연주회, 국제민족음악교류제 등 각종 공연을 통해 널리 알리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무주 나봄리조트, 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11일 무주 나봄리조트(사장 박진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경운 대표이사와 박진호 사장 등이 참석, 협약서에 서명하며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내용은 △교류 협력을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 △전북자치도 관광 정책 부응 사업 발굴 △양 기관 문화예술 향유 기회 증진 등이다. 박진호 사장은 "재단과 함께 체류형 관광산업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2024년 무주 방문의 해를 맞아 나봄리조트와 도내 관광사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출: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

전주매일 캠페인